

# 고흥군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 균형발전 완성의 열쇠”

### 지방소멸 대응 과제 핵심 모델 구축 등 우주산업 발전 당위성 강조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선순환 효과...범 군민 유치 열기 확산키로

고흥군이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비약적인 발전과 더불어 국가 균형 발전을 통한 동반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유치의 당위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군은 연초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자본의 집중과 기회의 편중으로 특정 지역 등에 집중 투자하는 성장전략은 한계가 있다”는 국정 철학을

바탕으로, 고흥을 기회와 열매를 나누는 ‘모두의 성장’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소멸 대응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타개할 핵심 모델로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가 구축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중 대안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여러 연구기관이 있고, 경남 사천은 우주항공청(KASA)이 각

각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서 대한민국 우주 영토를 확장하는 실질적 관문인 고흥은 산업 진흥을 뒷받침할 전문 지원 기관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불명등과 격차를 해소하고, 우주발사체 특화지구로서 정책적 편중을 바로잡아 대한민국 우주 경제의 결실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고흥에 입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군은 고흥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은 단순히 지역적 안배를 넘어, 삼각 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을 극대화

하는 전략적 선택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현재 조성 중인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시너지가 전남 지역 우주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구심점이 되어,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적 성과가 지역 사회에 고루 퍼지는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과거와 같은 특정 지역 위주의 집중 투자 방식으로는 대한민국 우주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 상생 발전을 위해 우

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흥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고흥군이 이미 세계적 수준의 발사 기반시설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매진하고 있는 만큼, 지역 균형 성장의 성과가 고흥에서 가장 먼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군의 모든 행정력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흥군 우주항공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 논리를 더욱 정교하게 보강해 중앙정부와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범군민적 유치 열기를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 읽고 만지고 만들어보고...도서관에서 책과 놀자

### 광양꿈빛도서관 어린이 프로그램 12월 10일까지 ‘책꾸러기 탐방대’ 자료실 탐방·그림책 읽기 등

광양꿈빛도서관이 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이 도서관과 친숙해지고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책꾸러기 탐방대’를 운영한다.

‘책꾸러기 탐방대’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즐겁고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며 책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기획된 체험형 견학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은 ▲도서관 이용 방법 안내를 시작으로 ▲자료실 탐방 ▲그림책 읽기 ▲체험 활동 등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내용으로 구성돼 있으며, 도서관 내 다양한 공간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특히 관내 도서관 가운데 유일한 어린이 전용 창작 체험 공간인 ‘꿈뜨락’에서는 책을 모티브로 읽고, 만지고, 만들어보는 자율 창작 활동이 진행된다. 이러한 호기심 자극형 체험 프로그램은 참여 아동들의 만족도가 높아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중심으로 사전 견학 신청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어린이 전문 강사 2명이 진행하며, 3월 3일부터 12월 10일까지 운영된다. 방학



광양꿈빛도서관이 어린이집과 유치원 원아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도록 어린이 견학 프로그램 ‘책꾸러기 탐방대’를 운영한다. <광양시 제공>

기간인 7~8월을 제외하고 매주 화·수·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되며, 참여 대상은 광양시 소재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관련 기관으로 회당 최소 10명에서 최대 2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한 기관당 월 2회까지 신청 가능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월 두 번째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

한 사항은 꿈빛도서관(061-797-3962)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책꾸러기 탐방대는 어린이들이 도서관을 어렵지 않고 즐거운 장소로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부패 척결·청탁 근절 ‘공정한 공직문화’ 실현 다짐

### 보성군, 반부패·청렴 실천 서약식

보성군이 최근 보성군, 보성군의회,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 참여한 ‘2026년 반부패·청렴 실천 결의 및 서약식’을 개최했다. <사진>

지난 9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이번 결의 및 서약식은 김철우 보성군수, 김경열 보성군의회 의장, 최옥 보성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해 보성군 공직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간부 공무원 40여 명(5급 이상 읍면장 및 부서장)이 대표로 청렴 실천 서약서에 서명하며 솔선수범 의지를 명확히 했다.

이날 행사는 공감형·체험형 방식으로 진행됐다. 식전 행사로 보성군립국악단이 창극 형식의 공연 ‘암행어사 녹차몬의 청렴 보고’를 선보이며, 청렴의 가치를 쉽고 친근하게 전달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공직사회 부패 척결, ▲부당 이익 금지, ▲알선 및 청탁 근절, ▲외부 부당 간섭 배제 등을 담은 청렴 결의문을 공동 낭독하고, 청렴 구호를 제창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공직문화 실현을 다짐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청렴 실천을 전 조직원의 일상 규범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에 오는 2월 20일까지 부서 및 읍면에서 자체 청렴 실천 결의대회를 실시하고, 전 직원이 업무일지 청렴서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실천 의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청렴은 공직사회의 기본 가치”라며, “전 공직자가 한뜻으로 청렴 실천에 동참

해 군민 신뢰를 높이고, 청렴근정 실현으로 보성의 미래 발전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022년부터 4년 연속 대한민국 최고 등급인 ‘종합청렴도 1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 구례 농업인 역량 강화 전문지도사 초청 작목별 맞춤교육

구례군이 지역 농업인의 영농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시행한 ‘2026년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지난 1월26일부터 2월6일까지 실시한 이번 교육은 매실, 감, 미생물, 시설감자, 콩 품목별 전문과제 5회와 찾아가는 읍·면 순회 종합과제 8회 등 총 13회로 최근 농업 환경 변화와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실용교육으로 구성됐다.

올해 교육은 농업인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진행돼 2289명의 농업인이 참여 높은 호응을 얻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여수시, 환경오염 예방 특별 감시 24일까지 하천·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상 지도·점검

여수시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오는 24일까지 관내 하천과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을 대상으로 특별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연휴 기간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공백을 틈탄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 감시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여수시청 누리집을 통한 환경오염 신고·상담 창구를 적극 홍보하고 중점 관리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기간에는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 상황실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비상 연

락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관내 하천과 환경오염 의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했다.

아울러 특별감시 기간 중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과 사후 관리도 철저히 추진할 예정이다.

여수시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자율적 참여와 함께 시민들께서는 불법 오염행위나 사고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희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

## 취약계층 아동 성장 지원 통합 서비스

### 순천시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정서·행동 등 21개 프로그램

순천시가 2026년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정한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사업 대상은 취약계층 아동 174명으로, 영아부터 초등학교생까지 폭넓게 포함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다문화·한부모 가정 아동 등이 대상이다.

특히 올해는 가족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두고, 가족 단위 여행과 상담을 지원하는 ‘내가 만든 하루’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또한 AI·IT 코딩 교육을 통해 디지털 학습 격차 해소에 힘쓰고, 지역 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드림스타트 사업은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방적 복지시스템으로 정서·행동, 부모·가족, 신체·건강, 인지·언어 등 4개 분야에서 21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드림스타트 사업참여는 순천시청 보육아동과 드림스타트팀(061-74-6606)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 광양시 “출생의 기쁨 함께 나눠요”

### 전광판 등 활용 아이 탄생 축하 메시지 송출 사업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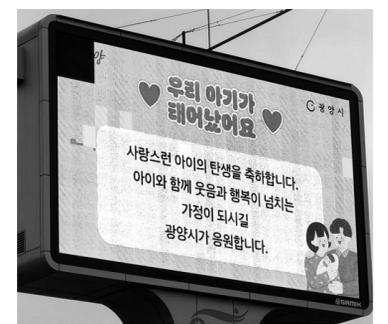
광양시가 4년 연속 인구 증가라는 가시적 성과를 바탕으로 출생의 기쁨을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고, 출생 가정에 대한 축하와 응원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출생 축하 메시지(사진)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양시는 2022년 이후 지속적인 인구 증가 흐름을 이어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드물게 4년 연속 인구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출생아 수는 1159명으로, 2024년 941명 대비 218명(23%)이 증가했다.

이번 사업은 이러한 긍정적인 인구 증가 흐름을 일회성 성과에 그치지 않고, 출생을 사회 전체가 함께 축하하는 문화로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 내용은 출생 가정을 대상으로 전광판·배너·온라인 채널 등을 활용해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송출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아이의 첫 시작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 출산 가정이 지역의 따뜻한 응원 속에서 양육을 시작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출생 가정의 동의를 받아 아이의 사진과 부모의 축하 문구를 함께 송출함으로써 아이 한 명



한 명의 탄생을 소중히 존중받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출생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출생신고 시 함께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출생보건과(061-797-4027)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 곡성군민 법률 자문 ‘찾아가는 마을변호사’

### 23~27일 11개 읍·면 순차 진행...누구나 무료 상담

곡성군이 지역민의 법률서비스 확대를 위해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운영한다.

곡성군은 지역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마을변호사’를 11개 읍·면에서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법률서비스는 지역민 누구나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올해 운영은 오는 23일 곡성읍사무소를 시작으로 27일에는 오곡면사무소에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하는 마을변호사는 강기원 변호사(법률사무소 기원), 김신원 변호사(김신원 법률사무소), 박연재 변호사(박연재 법률사무소), 오광표 변호

사(법무법인 마로), 임현정 변호사(연희로 법률사무소)이다.

주민들은 별도의 신청 절차나 이동 부담 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에서 편리하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재 법무부, 행정안전부, 대한변호사협회가 연계 운영 중인 ‘마을변호사’ 제도는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 지방자치단체 변호사를 조회해 전화·이메일로 상담하는 방식”이라며 “지역민들이 생활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kwangju.co.kr

##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장에 심정섭씨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제16대 지회장에 현 지회장인 심정섭(사진) 후보가 최근 선출됐다.

심 후보는 단독으로 후보 등록을 마쳐 대한노인회 곡성군지회 선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투표 없이 군 노인회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당선이 확정됐다.

심정섭 지회장은 재임 기간에 경로당 활성화 사업 추진, 어르신 복지 증진 프로그램 확대,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대외협력 강화 등 안정적인 조직 운영과 지속적인 노인복지 활동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는 4년으로, 오는 3월 31일 제15대 지회장 임

기 만료 이후 제16대 지회장으로서 공식 임기를 시작하며, 취임식은 4월 중 별도로 개최될 예정이다.

심정섭 지회장은 “곡성군 지회가 지역 어르신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소통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곡성=박순국 기자 psk8210@kwangju.co.kr

